

## < 要 約 >

### I. APEC의 現況과 問題點

- (APEC 出帆의 意義) 亞·太 지역 내 국가간 상호 의존도가 심화되는 가운데, 그동안 국가간 협력 논의가 민간 차원에서 활성화되었는데 이제 APEC을 통해서 비로소 공식 차원으로 옮겨지게 되었음
- (APEC 役割의 重要性) 亞·太 지역은 미·일 등 선진국과 매년 10% 이상의 고율 성장을 달성하는 신흥공업국이 병존하고 있어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해 왔음
  -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함으로써 WTO 체제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
  - 따라서 세계 최대 블록인 APEC이 EU, NAFTA 등 폐쇄적인 경제 블록의 확산 추세를 견제하는 역할 수행을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됨
- (APEC의 成立 背景 및 經過)
  - 역내 교역 및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역내 교역 환경의 개선과 상충하는 이해 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정부간 협의 채널이 필요해졌음
  - 개방적 세계 교역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아·태 지역의 공동 대응이 요구되었음
  - 이러한 배경하에 APEC은 1989년에 발족하였고 93년 시애틀 회담부터 정상급 회담으로 격상됨
  - 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 회담에서 '보고르 선언' 채택
    - APEC을 법적 구속력을 갖는 상설 기구화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음
- (APEC의 問題點과 課題)
  - 미·일의 패권주의나 동남아 국가들의 지역 이기주의가 표출될 가능성이 존재함
  - 자유화 일정에 관한 각국의 견해 차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 아·태 지역의 보다 나은 미래 실현을 위한 「자유화 일정에 관한 합리적인 합의점 도출」이 향후 가장 중요한 과제임

### II. APEC의 性格과 韓國 經濟

- (APEC의 基本性格)
  - 역외 국가를 차별하지 않는 「개방적 지역주의」 (Open Regionalism)
  - 역내 다양한 국가들의 입장이 조화된 「융통성 있는 일방주의」 (Concerted Unilateralism)
- (APEC과 韓國 經濟)
  - 우리 나라의 아·태 지역에 대한 경제 의존도는 거의 절대적 수준임
    - 교역: 한국 수출의 68.9%, 수입의 68.6%가 亞·太 지역에 의존함
    - 투자: 우리 나라 투자 건수의 87.7%가 아·태 지역에 집중
  - APEC이 활성화되고 역내 교류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때 우리 나라의 높은 역내 경제 의존도가 보다 안정적인 바탕 위에 설 것임

### III. 95 오사카 APEC의 爭點과 展望

#### ○ (基本 課題 및 爭點)

##### - 기본 과제

- 무역·투자의 '自由化', 무역·투자의 '圓滑化', '開發 協力'의 강화

##### - 자유화 일정을 둘러싼 쟁점

- 미국의 입장: 자유화 일정에 있어 '예외국'없는 공동 추진 주장
- ASEAN의 입장: 각국의 실정이 고려된 '자주적', '점진적' 자유화를 주장
- 한국·일본·대만·중국의 입장: 자유화 일정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면서 일부 분야(특히 농산물 분야)에 있어서 '예외 조항'을 주장

##### - 자유화 성과의 역외 적용을 둘러싼 쟁점

- 아시아 諸國: 역외를 차별하지 않고 '최혜국 대우'를 하도록 주장
- 미국: 역외 지역 국가들의 '무임 승차' 허용에 반대 입장을 고수

#### ○ (妥結 方向)

##### - 개도국이 주장한 2 단계 접근 방안의 무역·투자 실천안의 채택이 유력

- 제1 단계로 95년부터 실시 가능한 무역·투자의 '원활화' 분야에 논의의 초점을 두며, 제2 단계로 본격적인 무역·투자의 자유화 논의는 96년으로 넘김

#### ○ (長期 展望)

##### - '개방적 지역주의'는 현재 심화되고 있는 지역주의 경향을 완화시켜주는 역할

##### - APEC을 통해 지역 전체의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동시에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 창조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

### IV. APEC과 우리의 對應方向

#### ○ (APEC에 거는 期待)

##### - APEC의 '행동 지침'인 자유화, 원활화, 경제·기술 협력은 우리 경제의 대외 지향적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임

- 무역·투자의 자유화는 중국·동남아 진출에 결정적으로 유리

- 경제·기술 협력의 강화는 선진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이 용이해짐

##### - 다만 식량 안보 차원에서 농산물 분야를 공산품과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반 지침에 반영할 수 있는 경제 외교가 필요

#### ○ (APEC에 대한 對應方向)

##### - APEC의 향후 행보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를 활용해야 함

##### - APEC의 기본 방향인 '개방적 지역주의'를 반드시 관철, 폐쇄적인 지역주의로 귀결되는 것을 차단해야 함

##### - 동북아 안보 체제의 유지와 남북한 관계 해결의 場으로 적극 활용

##### - 미·일 편향적인 동남아 경제 판도를 극복하기 위해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중국 및 동남아시아와 협조적 무역 체계를 구축

## I. APEC의 現況과 問題點

- (APEC의 意義) 민간 차원에서의 다양한 형태로 전개된 亞·太 지역 내 경제 협력 논의가 APEC을 통해서 비로소 정부간의 공식 협의로 승격됨
  - 북미와 아시아 사이의 상호 대립 감소
  - 세계 경제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는 실험 무대
- (APEC의 成立 背景 및 經過)
  - 역내 교역 환경의 개선과 상충하는 이해 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협의 채널의 필요성 대두
  - 개방적 교역 질서 수호를 위한 亞·太 지역 차원의 공동 대응이 요구됨
  - 89년 출범, 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 회의에서 '보고르 선언' 채택
    -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방안 마련
- (APEC의 문제점과 과제)
  - 역내에서 소지역 패권주의의 표출 가능성
  - 자유화 일정을 둘러싼 각국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 개방적 지역주의를 고수하면서 각국의 경제 발전 단계를 고려한 합리적인 자유화 일정의 도출이 중요

## 1. APEC 出帆의 意義

APEC은 역내 여러 소지역의 협력체를 포함하는 광역 협력체

- 60년대부터 있어온 민간차원의 다양한 형태의 亞·太 경제 협력 논의가 APEC을 통해 비로소 정부간 공식 차원의 협의로 승격되었음
  - 현재 亞·太 지역에서 추진중인 경제 협력체로는 APEC 이외에도 ASEAN 자유무역지대(AFTA),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호주와 뉴질랜드간의 자유무역협정(CER) 등이 있으며 또한 EU, NAFTA 등에 대응, 동아시아 국가들로 구성되는 동아시아경제협력체(EAEC)도 최근 주목을 받고 있음

1). APEC 회원국은 현재 18개국으로 그 구성 국가는 다음과 같음. ASEAN 5개국(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부르나이), NAFTA 3개국(미국·캐나다·멕시코), ANIES 4개국(한국·대만·홍콩·싱가포르),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 뉴기니아, 칠레 등이다.

<亞.太 지역의 주요 경제 협력 지역 기구 추진 현황>

	APEC	NAFTA	AFTA	EAEC	CER
회원국	NAFTA 3개국, ANIES 4개국, ASEAN 5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 뉴기니아, 칠레 등 18개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3개국	ASEAN 6개국	일본, 중국, ANIES 4개국, ASEAN 5개국, 미얀마, 베트남 등 13개국	호주, 뉴질랜드
추진 경과	· 89년 11월 이래 4차례 회담 개최 · 93년부터 정상급 회담으로 격상	· 92년 8월 협상안 합의 · 94년 1월부터 추진	· 92년 1월 합의 · 93년 1월부터 추진	· 90년 12월 말 레이시아首相(마하티르)이 제안	· 83년 3월 호주-뉴질랜드 양국간에 조인
성격 및 내용	· 94년 보고르 선언에서 역내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의 경우는 2020년 까지 완전 무조건 자유화 · 무역 진흥, 인력 개발, 에너지 부문 등에서 협력 추진	· 향후 15년 이내 자유 무역권 형성 - 교역장벽 철폐 - 경쟁환경 조성 - 투자기회 확대 - 지적소유권 강화	· 1993-2003년 기간중 자유 무역권 형성세 - 공동특혜관세(CEPT) 도입 - 非관세장벽 철폐	· 국제협상시 공동보조, 무역 및 경제협력강화	· 경제-무역 협정으로 무역관제하의 수량제한 철폐, 무역자유화, 완전한 자유무역지역의 설립을 목표로

- 그러나 APEC은 위에서 언급한 NAFTA, AFTA 및 CER 등 역내의 소지역 협력체를 포함하는 광역 협력체로서 그 역할과 기능이 중시됨

○ EC의 예에서 볼 수 있는 “제도적 경제 통합”과 비교되는 “시장 주도적 경제 통합”<sup>2)</sup>, 즉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함으로써 WTO 체제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

- APEC 내에서의 상호 협력의 심화를 통하여 북미와 아시아에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양 블록의 상호 대립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2) “시장 주도적 경제통합”이란 태평양 지역의 고도 경제 성장이 개방적이고 대외 지향적인 경제정책의 채택에 따르는 시장의 급속한 확대에 힘입었음을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여러 개의 블록으로 나누어져 있는 현재의 세계 경제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는 실험 무대의 역할

것으로 기대

-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EU와의 협력 가능성도 예상되므로 APEC은 유럽, 미주, 아시아 등 여러 개의 블록으로 나누어져 있는 현재의 세계 경제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는 실험 무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2. APEC 役割의 重要性

20억 인구, 세계 GNP의 50%, 교역량의 40%를 차지하는 거대한 개방적 경제 블록

- 亞·太 지역은 미국, 일본 등 세계 1~2위 경제권과 매년 10% 이상에 가까운 성장을 달성하는 개발도상국이 위치하고 있어 세계 경제를 주도
  - 「개방적 지역주의」 원칙 아래 세계 무역의 자유화에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합의, WTO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이 기대됨
  - 20억 인구, 세계 GNP의 50%, 세계 교역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인 APEC에서 회원국 간의 쟁점을 조화·수렴시키는 모범적인 선례를 제시할 수 있음
  - APEC이 亞·太지역에서 중심적 경제기구로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EU, NAFTA 등 기존의 폐쇄적인 경제 블록의 확산 추세를 견제하는 역할도 기대됨

## 3. APEC의 成立 背景 및 經過

- 성장 잠재력의 유지·확충과 개방적 교역 질서의 확립 필요성이 점증
  - 즉 역내적으로 아·태 지역 국가들의 경제력이 부상하고 교역·투자 분야 등에서 상호 의존도가 심화되

개방적 세계 교역 질서의 수호를 위한 亞·太 지역 차원의 공동 대응이 요구됨

- 어 감에 따라 교역 환경 개선과 상충하는 이해를 조절하기 위한 정부간 협의 채널이 필요함
- 한편 역외적으로 아·태 지역 고도 성장의 전제 조건이 되어 왔던 개방적 세계 교역 질서의 수호를 위한 아·태 지역 차원의 공동 대응이 요구됨

○ APEC 회담의 경과

94년 보고르 선언을 채택 APEC을 법적 구속력을 갖는 상설기구화하는 발판을 마련

- 1989년 발족 이후 92년까지 4차례의 연차 총회를 가짐
- 10개 분야(무역 및 투자데이터, 무역 진흥, 투자 및 기술 이전, 인력자원 개발, 에너지 협력, 해양 자원 보존, 전기통신, 교통, 관광, 수산)에 대한 협력 사업을 전개
- 91년 ‘서울선언’에 의한 APEC의 목표, 활동 범위, 운용 방식 등의 명문화
- 싱가포르 소재 상설 사무국 설치 등 국제기구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기반 조성
- 93년 11월 Seattle 회담부터 정상급 회담으로 격상
- 무역자유화의 촉진 및 이를 달성키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짜도록 결의
- 그 결과로 무역투자위원회(CTI)가 공식적으로 발족(한국이 초대 의장국으로 피선)
- 94년 11월 인도네시아 보고르(Bogor) 회담에서 ‘보고르 선언’ 채택
- APEC을 법적 구속력을 갖는 상설기구화하는 발판을 마련
-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방안을 마련(선진국은 2010년까지, 개발도상국의 경우 2020년까지 역내 무역 및 투자 자유화 달성 선언)
- 역내 국민들에 대한 경제 성장의 혜택 확산, 교육 및 훈련의 개선, 역내 인프라의 극대화 및 풍부한 자연 자원의 활용 등을 위해 공동 협력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  
까지 역내 무역 및  
투자 자유화 달성  
선언

<APEC 각료 회의 개최 현황>

	개최일자	개최지	참가국	합의사항
제 1 차	1989. 11	호주 캔버라	12개국*	· UR 교섭 및 다국간 무역 개방 추진
제 2 차	1990. 7	싱가포르	12개국	· 역내 에너지 협력 등 7개 분야의 협력 프로젝트 추진 · 중국, 대만, 홍콩 등의 가입
제 3 차	1991. 11	서울	12개국, 중국, 홍콩, 대만	· 서울 APEC 선언 채택 · UR의 연내 타결을 위한 정치적 결의
제 4 차	1992. 9	태국 방콕	15개국	· APEC 사무국의 설치 및 예산제도 도입 · 역내 자유무역추진
제 5 차	1993. 11	미국 시애틀	15개국	· 무역투자위원회(CTI) 설립
제 6 차	1994. 11	인도네시아 보고르	18개국	· 보고르 선언 채택

\* ASEAN 6개국(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부르나이, 필리핀, 태국), 미국, 일본, 한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4. APEC의 問題點과 課題

각국의 경제 발전 단계를 고려한 합리적인 자유화 일정 도출이 중요

- 미.일 패권주의 혹은 4極 체제(미.일.중.아세안)간 소지역 이기주의의 표출 가능성이 있음
- 미시적인 관점에서 '농업 문제'와 '자유화의 성과'를 역외 모든 국가간에 무차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 등에 있어서 합의점 도출의 어려움이 존재함
  - 조급한 역내 자유화가 가져올 각국의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각국의 경제발전 단계를 고려한 합리적인 자유화 일정을 위한 합의점에 도달하는 것이 향후 APEC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대두

## II. APEC의 性格과 韓國 經濟

- (APEC의 基本 性格)
  - 「개방적 지역주의」 (Open Regionalism)
  - 「융통성 있는 일방주의」 (Concerted Unilateralism)
- (APEC에 對한 우리의 寄與)
  - 89년 호주와 함께 APEC 창설을 주도
  - 무역·투자의 자유화와 관련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공통 분모를 찾는 데 기여
  - 무역·투자 위원회(CTI) 초대 의장국으로 ‘자유화’와 ‘원활화’에 기여
- (APEC과 우리 경제) 우리나라의 경우 APEC 역내 국가와의 경제협력 비중이 절대적
  - 따라서 APEC을 통한 지역주의의 발전과 WTO 다자간 무역 체제에 적극 동참·활용

### 1. APEC의 基本性格

APEC의 기본 성격은 「개방적 지역주의」와 「융통성 있는 일방주의」

-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
  -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및 기술·경제 협력의 성과와 혜택이 특정 지역에 배타적으로 부여되는 것을 지양
  - 즉 개방적인 지역 경제 협력체의 성격으로 나아가고 있음
- 「융통성 있는 일방주의」(Concerted Unilateralism)
  - 각국이 강제력에 의존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유화 조치를 취하되 이를 서로 논의해서 전체적으로는 조화롭게 나가자는 의미를 지님
- 일반적으로 ‘지역주의’와 ‘개방정신’, ‘일방주의’와 ‘융통성’은 서로 양립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존재
  - 따라서 APEC의 이같은 모순과 갈등 요인을 극복하고 새로운 형태의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곧 범세계적인 자유 무역 주의를 만들어 가는 것임



## 2. 우리 나라의 寄與

우리나라는 APEC 창설과 함께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에 크게 기여

- 우리 나라의 APEC의 창설과 발전에 크게 기여
  - 89년 호주와 함께 APEC 창설을 주도
    - 91년 서울 회담에서는 중국, 대만, 홍콩을 동시에 가입시킴
    - 또한 APEC의 현장적인 '서울 선언'을 채택케 함
    - 93년 시애틀 회담에서는 무역·투자 자유화와 관련,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공통 분모를 찾는 데 기여
  - 직업 훈련 프로그램의 기초 조사와 APEC의 차세대 프로그램(NPG)을 주관
    - 95년에는 역내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테크노마트」를 대전에서 개최
  - APEC내 핵심 협의기구인 무역·투자 위원회(CTI) 초대 의장국을 맡아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에 크게 기여

## 3. APEC과 韓國 經濟

- 우리 나라와 亞·太 지역의 경제 교류 비중은 거의 절대적 수준임

<한국과 亞·太 지역간 경제협력 현황>

		아·태 지역 (A)	세 계 (B)	비 중 (A/B)	비 고
무역 (억 달러)	수 출	566	822	68.9%	93년 기준
	수 입	575	838	68.6%	"
투자 (억 달러)	수 출	43	49	87.8%	93.6 참고기준
	수 입	78	105	74.3%	93.4 참고기준
기술교류 (억 달러)	수 출	0.53	1.82	29.1%	92년 참고기준
	도 입	55	70	79.6%	"

아·태 지역에 대한  
우리 나라의 투자  
진출 건수는 전체  
의 87.7%, 對한국  
투자 진출 건수중  
74.3 %가 아·태 지  
역에서 온 것임

- 교역 면에서 한국 수출의 68.9%, 수입의 68.6%를 아·태 지역에 의존하고 있음
- 전통적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 일본이 가장 큰 비중 차지
- ASEAN의 경우 1994년 9월말 현재 수출액이 81억 3천만 달러로 전년동기비 18.6% 증가, 중국의 경우 44억 3천 7백만 달러로 전년동기비 21.3% 증가, 수입은 40억 6백만 달러로 40.8% 증가
- 경제협력은 투자교류에서 더욱 활발
- 93년 아·태 지역에 대한 우리 나라 투자 진출 건수는 전세계 투자 진출 건수의 87.7%, 對 한국 투자 진출 건수중 74.3%는 이 지역에서 온 것임
- 아·태 지역에서 도입되는 기술도 전체 도입기술의 79.6%를 차지

○ 따라서 우리 나라의 경우 WTO의 다자간 무역 체제는 물론 APEC을 통한 지역 경제 협력 체제에 적극 동참하여 이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APEC은 우리 나  
라가 속해있는 유  
일한 지역 경제 협  
력체로 대외 협상  
력 제고에 유력한  
수단

- APEC은 우리 나라가 유일하게 속해 있는 지역 경제 협력체로서 APEC의 적극적 참여는 우리 나라의 대외 협상력을 제고시켜 주는 유력한 수단
- 신흥 공업국의 선두 주자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이해관계를 조화·수렴시키는 조정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 우리의 대외 교역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일본, ASEAN 및 중국이 모두 APEC에 속한 역내 국가로서 APEC의 활성화는 우리 나라의 수출 증대와 직결됨
- APEC의 기능 강화 및 각종 자유화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세계화, 개방화를 앞당기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함

### III. 95 오사카 APEC의 爭點과 展望

- (課題)
  - ‘보고르 선언’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행동지침의 채택을 목표
  - 「自由化」, 「圓滑化」, 「開發協力」의 3 분야에 걸쳐 논의 예정
- (爭點)
  - 「자주적 자유화」를 둘러싸고 각국간의 참여한 대립
  - 자유화 성과의 역외 적용에 관한 미국과 아시아 諸國간의 異見 노출
- (展望)
  - 개도국이 주장한 「2 단계」 접근 방식에 의한 무역·투자 자유화 실천안 채택이 유력
  - 1 단계: 현재 실시가 가능한 무역·투자의 ‘원활화’ 분야만 논의
  - 2 단계: 본격적인 무역·투자의 자유화 논의는 96년으로 이월
- (APEC의 長期 展望)
  - 범세계적인 지역주의의 경향을 완화
  -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 창조에 이바지

#### 1. 95 오사카 APEC의 課題 및 爭點

오사카 APEC의 기본 과제는 무역·투자의 「자유화」 「원활화」 「개발 협력」으로 요약

##### ○ 오사카 APEC의 기본 과제

- 보고르 선언을 기반으로 무역·투자 자유화 계획의 구체적인 액션 아젠다(行動指針)를 채택하는 것임. 즉 「보고르 정치선언」을 「경제선언」으로 구체화
- 이를 위해 13개 부문(인력개발, 기술 이전, 중소기업 진흥, 인프라, 에너지, 통신, 수송, 무역 진흥, 관광, 무역 및 투자 데이터, 해양자원 개발, 농업, 수산 등)의 협력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를 크게 3분야로 大別해 보면:
  - 무역·투자의 「自由化」: 관세 인하 및 政府 調達 개방, 서비스·금융 산업의 자유화 및 지적 소유권의 존중
  - 무역·투자의 「圓滑化」: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행해지는 통관 절차의 간소화와 역내 공동화, 기

준 인증의 공통화, 특히 역내 직접 투자에 관한 원칙(투자에 관한 법령의 투명성 등)의 책정 문제

· 「開發協力」: 인재 육성, 중소기업의 진흥 및 기술 이전 등 廣義의 간접 자본 개발을 위한 협력 분야

- 이중 각국의 최대 관심사는 자유화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합의에 초점이 모아짐. 즉 자유화의 실천 행동 강령을 오사카 APEC에서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합의점을 이끌어 내는가에 있음

#### ○ 「自由化」를 둘러싼 갈등

-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과 ASEAN을 중심으로 하는 개도국간의 견해 차이가 정면으로 대립

· 미국의 입장: 자유화에 대해 각국이 목표 연도를 천명하고, '例外國'이 없는 공동 추진을 주장함(싱가포르가 同調). 즉 APEC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기를 희망

· ASEAN의 입장: 자유화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내부 실천 강령에 있어서는 각국의 실정이 충분히 고려된 '自主的·漸進的' 자유화를 주장. 즉 APEC에 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

· 일본·한국·중국<sup>3)</sup>·대만의 입장: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지만 농산물,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음. 특히 농산물 분야의 '例外規定'을 둘러싸고 미국·호주 등 여타 회원국과 첨예하게 대립<sup>4)</sup>

자유화 일정을 둘러싼 미국 중심의 선진국과 ASEAN 중심의 개도국 사이의 견해 차이가 정면으로 대립

3) 중국은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공업 분야에서도 자유화의 대폭적인 예외 항목을 설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4) 한국, 일본, 중국 등의 국가들은 농업 분야 자유화 이행과 관련 각국의 실정을 고려한 「多樣性의 原則」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특히 호주의 경우는 농산물 자유화가 없는 APEC의 자유화는 自國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강력히 농산물 분야의 자유화를 주장하고 있음 (호주 산업위원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농산물 분야의 자유화 없이 APEC에 참여할 경우 호주

<自由化를 둘러싼 各국의 갈등 현황>

	자유화 목표 년도 준수	농산물 분 야에 예외 규정 도입	자유화 성과 의 역외 무차 별 적용 여부
NAFTA	○	X	X
CER	○	X	○
ASEAN	X	X	○
한 국	○	○	○
일 본	○	○	○

○: 찬성, X: 반대

역내 자유화의 성  
과를 역외 국가에  
적용함에 있어서도  
미국과 아시아 諸  
國 사이에 異見이  
존재

- 자유화를 둘러싼 또 다른 마찰은 자유화의 성과를 域外 국가들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APEC이라는 협의체의 기본적인 성격 규정에 관한 문제임
- 아시아 諸國: WTO 정신에 입각하여 APEC이 취한 자유화 조치에 대해 '역내'와 '역외'를 차별하지 않고 '최혜국 대우'로 하도록 주장(진정한 '개방적 지역주의'의 구현이 목적)하고 있음
- 미국: APEC의 자유화 성과에 상응하는 조건을 갖춘 域外國에게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 즉 역외로 성과를 확대하면 비회원국 및 지역의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표명
- 자유화 원칙의 역외 적용에 관한 미국의 입장은 향후 APEC을 EU와 NAFTA와 같은 자유무역지대로 만들어, 역내의 장벽을 없애는 한편, 역외에 대해서 차별을 둘 것을 의도하고 있음. 또한 EU 등과의 통상교섭을 유리하게 진행시키기 위한 발판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도 있음

의 실질 국민 소득은 0.72% 감소하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0.38% 증가될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APEC의 성공이 호주 경제 및 외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APEC의 성공을 위해 호주 정부는 농산물 분야 등 민감한 분야의 자유화에 대해서 유연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개도국은 금융 서비스 자유화에 있어서 예외 조치의 필요성 강조

### ○ 금융 서비스 자유화를 둘러싼 갈등

- 미국은 WTO에서 금융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 문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특히 아시아 지역은 불충분하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APEC에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전략
- 이에 맞서 미국에 비해 경제력이 약한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개도국들은 예외 조치의 필요성을 들어 미국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
- 금융 서비스 분야의 미국식 자유화의 성급한 추진에 의한 후유증의 대표적인 경우인 「금년초 멕시코 폐소貨의 위기」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음

## 2. 오사카 APEC 會談의 妥結方向

오사카 APEC에서 개도국이 주장한 2단계 접근 방안의 무역·투자 자유화 실천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큼

### ○ 「2 단계」 접근 방식으로 추진될 무역·투자 자유화의 實踐案

- 본격적인 자유화 시나리오를 작성을 목표로 했던 미국의 의도는 아시아 개도국의 강한 반발로 크게 후퇴될 것으로 예상<sup>5)</sup>
- 개도국이 주장한 「2 단계」 접근 방안에 대략의 합의점이 도출될 가능성이 커짐
- 즉 제 1 단계로 이번 오사카 회의에서는 올해부터 합의·실시 가능한 세관 수속의 간소화, 수출입時 기준 인정의 상호 승인 등 「圓滑化」 분야로 논의의 초점을 맞추면서 제 2 단계로 본격적인 투자·무역의 자유화 논의는 96년 필리핀 회의로 넘긴다는 것
- 자유화 실시 시작 시기를 1997년으로 명기하는 것으로 합의 예상

5) 특히 그 동안 쌀 시장 개방을 끈질기게 요구해온 미국이 회의 개막 일주일을 남겨두고(95년 11월 9일)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농업분야 등을 포함한 쟁점 현안에 대해 유연성을 보이며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어 미국의 「카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따라서 현재 의장단인 일본의 행동 지침 합의안은 관세 및 기준 인증에 관한 데이터 베이스 완성과 각국의 경쟁 정책 현상 조사 실시 등 자유화의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에서부터 2005년부터 미터법을 실시한다는 것이 내용의 중심을 이루고 있음
- 다만 현재 APEC 내에서 가장 민감한 事案인 농업 분야 등의 예외 취급 문제, 자유화의 성과를 域外國에 무차별하게 적용할지 여부<sup>6)</sup>, 각국의 자유화의 보조 일치 문제 등은 이번 총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

○ 기대되는 일본의 역할

이번 회담의 의장국인 일본이 미국과 아시아의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해주기를 기대

- 의장국으로서 일본이 '미국과 아시아의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해주기를 기대
- 즉 일본이 이룩한 '경제 발전'과 '시장 개방'의 경험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의 '발전단계별 자유화'의 필요성을 미국에 설득시키는 일본 경제 외교의 능력에 기대<sup>7)</sup>

3. APEC에 대한 長期 展望

○ APEC의 내부 문제점

- 역내에 다양한 역사적·문화적·인종적·정치적 배경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역내 국가간 경제발전 단계가

6) 이 문제에 관해서는 11월 16일에 개최된 본회의에서는 결론을 보류하기로 10월 24일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음

7) 발전 단계별 자유화안은 ① 자유화의 정도와 시기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② 자유화 분야와 범위도 각각 발전의 차이를 반영시킴. 예를 들면 일본의 경험으로는 공산품(농산물 제외)의 자유화 뒤에 금융 자유화가, 그 뒤에 서비스의 자유화가 이어졌음.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순서로 자유화가 진전될 것임. 따라서 자유화를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미국과, 그것을 두려워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이해 관계를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단계적 자유화 방안 일 것임.

APEC이라는 대화의 뒤편에는 아시아 시장을 둘러싸고 격돌하는 치열한 파워 게임 전개 의 위험이 내포

美·日·ASEAN·中 4국 체제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상

로 상이하여 미국·일본을 비롯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인 ASEAN간의 의견 차이, 아시아 지역과 非아시아 지역의 견해 차이 등이 존재하여 APEC이 단시일 내에 하나의 경제권으로 변모하는 것에는 뚜렷한 한계가 존재함

- APEC이라는 대화의 뒤편에는 아시아 시장을 둘러싸고 격돌하는 미·일 패권주의, 이에 대항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주의,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는 중국간의 치열한 파워 게임 전개, 즉 집단 이기주의 표출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음

○ APEC을 둘러싼 4국 체제의 이해관계 대립

- 美國: 「강력한 APEC」 지향
  - 장래성이 보장되는 중국·동남아 시장의 「日本化」를 봉쇄하며 APEC을 통해 아시아를 미국 주도 체제로 구축
  - 장기적으로 아시아에서 주요 파트너를 일본에서 중국으로 대체하려는 전략을 APEC 내에서 시도
- 日本: 「약한 APEC」 지향
  -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의 제1 전략은 「달러圏으로 부터의 자립」 및 동남아시아에서의 「円블록」의 구축
  -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APEC에 대한 적극적 자세로 돌변하자 뒤늦게 APEC의 主流에 합류하기 위해 노력
- ASEAN 國家: APEC에 대해 국가간 통일된 견해를 제시하지 못하고 서로 상이한 입장을 표명
  - 싱가포르의 경우 자유무역의 빠른 실시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AFTA설립의 목표 연도를 2003년에서 2000년으로 앞당길 것을 주장하는 한편 APEC의 「自由化」일정에 있어서도 미국의 입장을 지지
  - 말레이시아의 경우 APEC의 결성에 대해 상당히 비



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오히려 백인 국가가 제외된 EAEC(東아시아 경제 회의)를 옹호

-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경우는 역내의 경제 블록 자체에 어느 정도 회의적인 태도(수동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sup>8)</sup>

- 中國

- 역내 華僑國家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에서 발언권을 높이면서 美·中 관계 개선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강자로서의 부상을 목표로 함

○ APEC의 장기 전망

그러나, 위의 문제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는 현재 심화되고 있는 범세계적인 지역주의 경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
- APEC의 진전은 기존의 지역주의를 개방적으로 만드는 압력 요인으로 작용
- APEC은 미국과 일본의 교역 마찰에서 야기된 미국 시장의 보호주의적인 경향을 완화
- APEC을 통한 역내 다이내미즘의 유지는 지역 전체의 공동 번영으로 귀결될 것이며 다자간 교역 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APEC을 통한 역내 다이내미즘의 유지는 지역 전체의 공동 번영으로 귀결

8)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경우 APEC을 통해 보다 광활한 시장접근이 용이하고 기술과 자본의 이전을 보장받는데 유용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인도네시아는 APEC 협정 이전에도 역내의 개방경제체제로부터 경제적으로나 非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을 얻어 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음

## IV. APEC과 우리의 對應方向

- (오사카 APEC에의 期待)
  - 역내 무역·투자의 자유화가 우리 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됨
  - 따라서 '자유화'와 '원활화'를 위한 '일반 원칙'을 지지
  - 다만 농산물 분야에 있어서 '예외규정'이 반영되는 경제 외교에 주력
- (APEC에 대한 對應 方向)
  - APEC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참여, 우리의 國益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
  - '개방적 지역주의' 관철
  - 역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중재자 역할 수행
  - 남북한 문제의 해결의 場으로 활용

### 1. 95 오사카 APEC에 거는 期待

우리나라는 APEC의 일반원칙의 실현을 기본적으로 지지

- 95 오사카 APEC의 핵심 의제는 무역·투자의 자유화와 경제·기술 협력을 위한 '행동지침'의 마련에 있음
  - 따라서 행동지침은 ①자유화 ②원활화 ③경제·기술 협력 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 이 중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부분은 보고르 선언에서 채택된 무역·투자 자유화의 일반 원칙을 구체적인 행동지침으로 확정하는 방안, 특히 '농업의 자유화'가 논란의 초점
- 우리 나라의 경우 무역·투자 자유화와 원활화를 위한 일반원칙을 기본적으로 지지하고 있음
  - APEC 차원의 무역·투자 자유화가 우리 경제의 대외 지향적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음
  - 역내 무역·투자의 자유화는 기업들이 중국, 동남아 등 우리의 최대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지역으

- 로 진출하는 데 크게 도움
- 역내 경제·기술 협력의 강화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부터 기술 이전을 받기 쉬워지는 한편 對개도국과의 경제협력도 긴밀하게 할 것으로 전망
- 다만 농업 분야 등 일부분야의 예외조항의 문제로 미국·호주 등과 대립
-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업 분야는 공산품과 달리 취급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행동지침'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제 외교력을 집중

## 2. APEC에 대한 對應 方向

美·日·中·ASEAN 4  
極 대립구조를 충  
분히 이용한 중재  
자 역할을 수행함  
으로써 국제사회에  
서 우리의 位相을  
제고

- 우리 나라는 APEC 이외의 다른 지역 기구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APEC에 적극 참여·활용 할 필요가 있음
- APEC의 기본방향인 「개방적 지역주의」를 관철
  - 일본의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주의를 차단하기 위하여 아시아 경제권과 北美 경제권의 분리 움직임을 견제
  - 동시에 미국의 패권주의와 NAFTA의 대항 세력으로 존재 의의를 갖기 위하여 EAEC(동아시아 경제협의회) 운영을 구체화<sup>9)</sup>
  - 또한 ASEAN 협력 강화가 폐쇄적인 지역주의로 귀결되는 것도 적극 경계
- 4極(미·일·중·ASEAN) 대립구조를 충분히 이용한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함으로써

9) 당초 마히타르 구상에 의한 EAEC의 아시아 블록 형성 사고는 「개방적 지역주의」와 WTO에 반하는 것으로 거부되어야 하지만, EAEC의 문호를 개방하여 호주와 뉴질랜드를 포함한 非 NAFTA 각국을 모은 퍼시픽아시아협의체로 발전한다면 EU와 NAFTA에 대한 아시아의 대응이라는 점에서 그 위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봄.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位相을 제고

- 신흥공업국의 선두 주자로서 역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
- 향후 무역·투자 자유화의 구체적 대상 범위의 설정이라든가, 관세 문제의 방향 설정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국익이 반영되면서 또 다른 한편 '亞·太' 지역의 보다 나은 未來 實現'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경제 외교에 총력전을 펼침

북한의 APEC 가입을 적극 유도하여 동북아 안보 체제의 유지와 남북 문제의 해결의 場으로 활용

○ APEC을 동북아 안보 체제의 유지와 남북 문제의 해결의 場으로 적극 활용

- APEC 역내 개도국의 개방화에 대한 사례를 철저히 분석, 향후 북한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
- 나아가 북한의 APEC 가입을 적극 유도하며 북한 경제의 개방화를 APEC 수준에서 추진
- 통일 경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

우리 기업의 경우 8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공업화하고 있는 중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협조적 무역체계 구축

○ 마·일 편향적인 동남아 경제판도에 집중적 투자를 통해 본격적인 실리 외교를 추구

- 동남아시아에서의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해 정부는 우리 기업의 동남아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관련 규제들을 과감하게 제거
- APEC의 민간자문기구인 PBF(태평양경제인포럼)에서 건의하고 있는 'APEC 비자' 구상과 '인프라태스크포스' 설립에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지
- 우리 기업의 경우 80년도 후반 이후 빠른 속도로 공업화하고 있는 중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협조적 무역체계 구축

(이 원 호)